

泰仁 龍藏寺 開板佛事 研究

A Study on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at Temple YongJang in Tae-In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 言 | 3.1 시주자 분석 |
| 2. 開板佛書의 특징 | 3.2 개판자 분석 |
| 2.1 개판불서의 성격 | 4. 결 언 |
| 2.2 개판비용의 추산 | <참고문헌> |
| 3. 개판불사의 주체 | |

<초 록>

이 글은 조선 후기 1635년에 전라도 태인 운주산에 소재하였던 용장사에서 개판한 불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당시 용장사에서는 3여 년에 걸쳐 11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는데, 이들 불서는 주로 사찰의 승려교육에 필수적인 강원교재와 불교의식에 필요한 의례불서이다. 개판 불사는 당시 서산 문도의 최고 제자인 소요 태능과 입난 이후 증창불사를 주도한 벽암 각성 등의 발원으로 최계장과 신복 등 500여 명의 시주자가 참여하여 이 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리고 실제 개판 작업에는 화사 계학을 중심으로 여러 사찰에서 각수 경험이 풍부한 으뜸 각수 인화 등 12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대략 14개월에 걸쳐 완각해 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이 개판불사는 입난 이후 산일된 불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당시 주변 사찰에서 전혀 개판한 사실이 없는 강원교재류와 의례불서를 간행하여 인근 사찰에 보급할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要語: 태인, 운주산, 용장사, 태능, 각성, 계학, 인화, 최계장, 신복, 강원교재, 의례서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Buddhist scriptures which are published at Temple YongJang, Tae-In in Jeolla province in late Joseon dynasty of 1635. In those days, eleven series of the Buddhist scriptures had been publish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t Temple YongJang. Mostly, those are prerequisite teaching textbooks for educating Buddhist monks at Temple and books of ritual which is necessary for performing Buddhist ceremony. Such a huge Buddhist scriptures publishing stuff had been done based on the great aspiration of Soyo Taeneung(逍遙太能) — the best disciple of Seosan(西山) and Byeogam Gakseong(碧巖覺性) who led the rebuilding temples after Japanese Invasion in 1592. Over 500 supporters including Choegyejjang(崔繼長), Shinbok(申福) participated in publishing books and covered the needed cost. Also, it is determined that twelve engravers, including Inhwa(印和) who are with many engraving experiences from several temples had participated in the actual process of publishing the Buddhist scripture with painter Gyehak(戒學) as central figure, and it had taken approximately fourteen months to complete. In conclusion, publishing the Buddhist scriptures was progressed in order to supplement some parts of the Buddhist scriptures which were disappeared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us, the intention was to distribute teaching materials and ritual of Buddhist scriptures which showed no historical evidence regarding publication by neighboring temples at that time.

Key words: Teain, Unjusan, Yongjang, Taeneung, Gakseong, Gyehak, Inhwa, Choegyejjang, Shinbok, Teaching textbook for monk, Book of ritual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7년 8월 21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1. 緒言

용장사는 조선 말기까지 전라북도 태인현 운주산에 있었던 사찰이다. 그런데 이 곳 용장사에서는 조선시대 1635년 한 해 동안에만 11종의 불서가 개관되었던 사실이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불서 간행 현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차례에 걸쳐 개관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평소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판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지 한차례에 다종의 불서를 간행했던 용장사본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유독 이 사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서가 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차례 개관불사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사찰이 폐사가 되어서 더 이상은 개관되지 않았던 것인가 하고 단순히 지나치고 말았다. 그런데 근래 태인 용장사의 건치연혁을 중심으로 폐사시기와 그 이유를 밝혀 주는 논고가 발표되어 그 동안 필자의 우려와 우매함을 일시에 해결해 주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인 용장사는 라말려초에 雲住 照通에 의해 창건되어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인 1894년에 이른바 동학농민운동이란 대사건이 이 지역 인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무렵 동학접주로 이 운동을 지휘했던 전봉준(1855-1895)이 사찰 인근으로 피신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찰이 전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

한편 ‘泰仁’하면 한국서적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방각본과 함께 이를 주도한 朴致維와 田以采가 금방 떠오르는 곳이다. 방각본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상업용 서적으로 우리의 출판사에 있어서 한 동안 태인 방각본이 134년 동안(1672-1806)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전에 필자가 당시 주도적 활동을 했던 양진거사 박치유의 행적이 담겨 있는 자료를 새로 발굴하여 그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태인과 운문암에서 살아갔던 인물로 재조명되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²⁾ 이처럼 태인 지방에서 방각본은 불과 10년 사이에 13종이 간행되었지만, 조선 전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출판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실이 보이고 있다.³⁾ 그리하여 출판물의 보급과 지식의 확산으로 이후 이 지역에서 동학운동이 확산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처럼 출판사적 측면에서 보면 태인 용장사의 개관불사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비록 한차례의 개관불사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임진병란 전후로 호남북부 인근 사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우리나라에 잔존하는 수많은 사찰본 속에서 태인 용장사에서 단독으로 간행된 판본을 대상으로 그 현존 여부를 조사하니 모두 11종이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11종의 용장사본을 대상으로 과연 어떤 의도로 개관불사가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간행불서의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또한 개관불사에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

1) 이 글에서는 용장사의 창건과 폐사된 시기에 대해 다각도로 살피고 있어 필자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 허인욱,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전북사학』 제48호(2016), 32-54.

2) 송일기, “白坡 巨巖과 養眞居士 朴致維의 만남,” 『불교문화연구』 제8집(2006), 169-209. 이 글은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에서 2010년에 발행한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에 재수록.

3)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書誌學報』 제30호(2006. 12), 63-88.

가를 추산해 보아 이 불사가 갖는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개관불사에 참여한 시주자의 규모와 과연 주도적으로 시주한 인물들은 누구인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당시 실제 개관작업에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소임을 맡아서 불사를 수행했던 주체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 開板佛書의 특징

2.1 개관불서의 성격

용장사는 비록 현재 폐사된 사찰이지만 고려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전라도 태인의 운주산에 소재했던 사찰이다. 그런데 불교사적으로 그다지 특이한 연혁도 없는 이 사찰에서 이례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불서가 일시에 11(+5)종이나 개관되었던 현상이 보이고 있어 그 간행의 배경이나 지원세력 등이 자못 주목이 된다. 이는 조선시대 우리나라 전국의 사찰에서 전후시기에 개관 사실이 전무한 데 특정 연도에만 일시에 다종의 불서를 개관한 사례는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전국 사찰의 불서 간행사에서 비교적 다종의 불서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관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특정 연도 다종 불서개관 사례

사찰	개관년	종수	해당불서
安心寺 (無等山)	1570년	10종	高峯和尚禪要,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說玉樞寶經, 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口訣),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佛祖三經, 禪源諸詮集都序, 達摩大師血脈論, 觀心論, 最上乘論, 三老行蹟
澄光寺	1686년	10종	大慧普覺禪師書, 狗子無佛性揀病論, 淨土寶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歷朝華嚴經持驗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禪源諸詮集都序, 高峯和尚禪要,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觀世音持驗記
佛巖寺	1796년	10종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佛說因果曲, 金剛般若波羅密經(六經合部), 佛說山王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音譯), 敬信錄諺釋, 金剛般若波羅密經, 佛說壽生經抄(音譯), 三經合部, 金剛般若波羅密經(音譯)
能仁庵	1604년	9종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妙法蓮華經, 大慧普覺禪師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高峯和尚禪要, 請文, 圓頓成佛論, 看話決疑論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전기 1570년에 전라도 동북(화순)의 안심사에서 10여 종을 개관한 사례가 보이고 있으며, 조선후기 1686년에 전라도 낙안의 징광사와 1796년에 경기도 양주의 불암사에서 10여 종을 개관하였다. 그밖에 경상도 하동의 능인암에서는 1604년에 9종을 개관하였지만

그 전해에도 5종을 개관한 사실이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는 1608년에 비록 8종을 개관하였지만 그 이전해와 다음해에도 10여 종의 불서가 연이어 개관된 사실이 보이고 있다. 물론 불암사의 경우도 1796년에 10여 종의 불서를 개관한 사실이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책에 다종의 불서가 합부된 상태로 전체 분량 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처럼 이들 사찰은 다종의 불서를 개관한 특정 연도를 전후로도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불서를 개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용장사에서 조선 인조 13년(1635)의 한 해 동안만 개관 사실이 보이고 그 전후시기에 전혀 개관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⁴⁾ 이때 용장사에서 개관한 불서는 여러 사찰과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용장사관 불서는 아래의 목록과 같다.

<표 2> 태인 용장사 개관 불서의 서지목록

번호	서명	권책수	번란	크기(cm)	계선	행자수	어미	비고
01	高峯和尚禪要	單卷1책	사주단번	19.9×13.9	무계	8행18자	2엽화문	능인암관(1604) 복각
02	金剛般若波羅密經 (五家解)	2권2책	사주단번	26.5×19.0	유계	9행19자	3엽화문	신안사관(1537) 번각
03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5책	사주단번	25.0×16.8	무계	8행20자	2엽화문	신흥본(1401) 지본
04	大慧普覺禪師書 (合: 揀病論)	單卷1책	사주단번	19.5×15.5	무계	10행17자	무어미	천관사관(1568) 번각
05	妙法蓮華經	1권1책	사주단번	21.7×16.5	유계	8행13자	2엽화문	수연사관(1628) 번각
06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單卷1책	사주단번	19.5×13.7	무계	9행18자	2엽화문	능인암관(1604) 번각
07	佛說廣本大藏經(音譯)	不分卷 1책	사주단번	23.2×17.2	무계	5행14자	흑어미	독자관
08	禪源諸詮集都序	2권1책	사주단번	19.0×13.3	무계	9행19자	2엽화문	능인암관(1603) 번각
09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單卷1책	사주단번	26.5×20.0	유계	7행17자	2엽화문	능인암관(1604) 번각
10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單卷1책	사주단번	26.2×20.2	유계	7행17자	2엽화문	능인암관(1604) 번각
11	初發心自警文 (合: 四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	不分卷 1책	사주단번	17.8×13.5	무계	8행18자	2엽화문	능인암관(1603) 복각

상기 서지목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용장사 개관 불서는 모두 11종이지만 4번의 『대혜서』에 『狗子無佛性揀病論』이 합철되어 있으며, 또한 11번의 『초발심자경문』은 기본적으로 지눌의 『誠初心學人文』, 원효의 『發心修行章』, 야은의 『自警序』가 합집된 것이며, 여기에 『四法語』와 『蒙山和尚法

4) 다만 간행지가 泰仁으로 동일하나 사찰명이 雲住寺로 기재된 『묘법연화경』 1종이 1670년에 간행된 사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연구 대상을 龍藏寺 간행본으로 한정하였다.

『語略錄』이 합철된 상태로 실제 종수는 16종으로 볼 수 있다.⁵⁾ 이들 용장사판 11종의 불서에는 전체 사찰본에서 내용적으로나 판본사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불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고난에 밝힌 바와 같이 용장사본은 대체로 사집과 강원교재를 중심으로 17세기 초반에 경상도 하동의 能仁庵에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 또는 복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들 불서를 불교문헌의 분류체계에 따른 형식적 분류보다는 주제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태인 용장사 개판불서의 성격

구분	강원교재				불교의례
	沙彌科	四集科	四教科	大教科	
해당 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誠初心學人文 • 發心修行章 • 自警序 (四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峯和尚禪要 • 大慧普覺禪師書 (揀病論) • 法集別行錄節要 并私記 • 禪源諸詮集都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妙法蓮華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佛說廣大歲經(音譯)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종수	5종	5종	2종	1종	3종

따라서 용장사 개판 불서를 불서의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크게 강원교재와 불교의례로 분류된다. 사찰 강원의 교육학제는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의 4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최상급 과정으로 隨意科가 설정되어 있다. 강원교재 중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미과와 사집과에 해당하는 서적은 대부분 개판하였으나, 대부분 분량이 방대한 『화엄경』, 『선문염송』, 『경덕전등록』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대교과 교재는 개판되지 않았다. 다만 대교과에 해당하는 『법화경』 1종이 개판되었으나 이 또한 전체 7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권1만 대자본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개판한 것으로 보아 교재로서의 의미보다는 공덕을 목적으로 간행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한 방대한 불서 중에서 1635년 태인의 용장사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들 11종의 불서를 선정하여 개판하였던 것인가. 먼저 눈을 돌려 용장사 인근의 대표적 사찰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지근거리의 모악산에 금산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서쪽으로 도솔산에 선운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금산사와 선운사는 현재도 전국을 대표하는 교구본사의 사격을 지닌 대찰로 용장사와는 사세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불서 간행의 측면에서만 비교해 보면 11종을 간행한 용장사에 비해 오히려 두 대찰이 너무 초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고창 선운사는 임란 직전에 1574년에 남명천화상의 『증도가』를 개판하였으며, 그 후 조선후기에 『석씨원류』(1710년)⁶⁾와 『염불보권문』(1787년)을 간행하였을

5)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철한 불서 5종을 포함하지 않은 11종으로 표기한다.
6) 특히 『석씨원류』의 간행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문과 발문의 작성 연대를 근거로 한 동안 그 개판시기가 1648년으로

뿐이다. 또한 선운사보다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금산사에서는 임난 이전인 조선전기에 한 종의 불서도 개관한 사실이 없으며, 조선후기에 『염불인유경』(1685년), 『육경합부』(1694년), 『제반진언집』(1694년), 『은중경언해』(1720년) 등 4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담양 추월산의 용천사에서는 임난 이전인 1537년에 『묘법연화경』의 간행 등 조선 전기에만 20여 종의 불서가 개관된 사실이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

한편 용장사는 라말려초에 창건되어 원 간섭기에는 제법 사세가 번창하였으나, 임진과 정묘의 양난을 거치는 동안 병화로 폐사가 되었다가 얼마 후 1630년 무렵에 다시 중창된 사찰이다. 이 용장사가 중창된 지 불과 5년 후인 1635년에 대규모의 개관불사가 조성된 결과 11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처럼 폐사된 지 불과 20년 후에 중창되었으며, 중창된 지 불과 5년 후에 다종의 불서가 일시에 개관된 경우는 흔치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 이때 개관한 불서에는 주로 사찰의 강원교육에 필수적인 교재와 죽은 사람의 천도를 위해 의식에 필요한 『중례문』과 『결수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불서는 일차적으로 양난을 거치는 동안 조선전기에 간행된 상당량의 불서가 약탈되거나 소실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 사찰에서 승려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재류가 우선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양난과 정묘호란(1627년) 등의 병란으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어 사찰에서는 이들을 천도하는 의식이 빈번해지자 이에 수반되는 의례서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용장사의 불서 개관은 당시 인근의 대찰에서 불서 간행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변 사찰에 보급한 강원교재와 불교의례 서적을 간행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호남북부 지역의 사찰에 보급할 목적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불서의 개관불사에는 사찰 건물의 조성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불사이다.

2.2 개관비용의 추산

사찰에서 불서의 개관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하는 시주자와 실제 관목을 준비하여 판각하는 실무자, 그리고 이 작업을 지원하고 주관하는 조연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진행되는 불사이다. 불서간행에는 대략 판목마련, 판각과정, 인출과 장황작업 등의 제반 단계를 거쳐 비로소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서 개관의 각 과정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략 판목과 종이를 마련하는데 요구되는 재료비와 각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생활비 등이 주요 항목이다.

조선시대 이러한 개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량적으로 산출한 성과물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조선 후기 1891년에 許傳의 문집인 『性齋集』을 간행하는데 산출된 자료가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성산 김씨 문중에서 18개월 동안 『성재집』의 간행에 소요된 결산자료의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알려져 왔으나, 최근 선운사 소장의 <사적기>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1710년에 간행되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일기, “禪雲寺板 <釋氏源流>의 刊行事實,”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2014. 5), 241-257.

<표 4> 성재집의 출판비용 내역

용도	재료비	인건비	생활비	합계
소요비용	1,970냥 (*판목, 종이 구입 및 운반비)	2,750냥 (*판각 및 인출 인건비)	2,448냥 (*식료품 및 잡비)	7,168냥
비율	27.5%	38.4%	34.1%	100%

* 총 632판 100부 간행기준/단위 냥

『성재집』은 모두 33권 17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완성기간은 18개월이 소요되었고 여기에 사용된 목판은 총 632판이다. 이를 기준으로 목판과 종이의 재료비 1,970냥, 18개월간의 각수와 인출공의 인건비 2,750냥, 그리고 18개월간의 생활비 2,448냥 등 합계 7,168냥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각수의 판각 인건비인데, 전체 632판을 판각하는데 2,149냥이 지출되어 1판을 판각하는데 평균 3.4냥이 지출된 것으로 산출된다.

그렇다면 1635년 한 해 동안 16종의 불서를 개판한 용장사의 경우 개판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었을 것인가.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시 16종의 불서의 개판에 사용된 목판의 전체 수량을 파악하는 일이 선결 문제이다. 그리하여 11종 16책의 용장사본의 각 책의 장수를 파악하고 이를 판수로 환산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태인 용장사의 개판불서 현황

書名	冊數	張數	板數	板刻時期
高峯和尚禪要	1책	4+49 합53	27	崇禎8年4月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2책	10+(상)126+(하)110 합246	123	崇禎8年8月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5책	7+(1)46+(2)52+(3)50+(4)55+(5)35+(6)47+(7)44+(8)60+(9)51+(10)41 합488	244	崇禎8年4月
大慧普覺禪師書(合: 揀病論)	1책	116+4 합120	60	崇禎8年8月
妙法蓮華經	1책	8+51 합59	30	崇禎8年8月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책	합75	38	崇禎8年8月
佛說廣本大歲經(音譯)	1책	합122	61	崇禎8年9月
禪源諸詮集都序	1책	5+(상)35+(하)33 합73	37	崇禎8年8月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41+12 합53	27	崇禎8年4月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	합65	33	崇禎8年4月
初發心自警文(合: 四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	1책	4+3+9+5+12 합33	17	崇禎8年4月
11종	16책	1,387장	694판	

7) 손계영이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과주: 글항아리, 2013, p.238)의 「책판의 간행비용 및 지출항목」에서 제시한 표를 근거로 재정리한 것이다.

상기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용장사본 11종 16책의 전체 張數는 1,387장으로 파악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목판은 한판에 양면으로 판각하므로 실제 사용된 목판 수량은 694판으로 산출된다. 다만 변상도나 서문과 간기면의 경우 왕왕 단면에만 판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대략 700판 정도로 추산하고 싶다.⁸⁾

그리하여 산출된 판수를 기준으로 『성재집』의 사례에 이를 대비해 보면 대략 판각 비용은 2,380냥(700판×3.4냥)으로 추산된다.⁹⁾ 이를 기준으로 성재집의 판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성재집의 출판비용에 적용하여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용장사본의 출판비용 추산

용도	재료비	인건비	생활비	합계
소요비용	1,970냥(+217냥) 2,187냥	2,750냥(+302냥) 3,052냥	2,448냥(+269) 2,717냥	7,168냥(+788냥) 7,956냥
비율	27.5%	38.4%	34.1%	100%

이와 같이 산출된 근거로 보면 용장사 개관불사에 소용된 비용은 대략 8천 냥 정도로 추산된다. 물론 민간의 출판 사례와 공덕을 중시하는 사찰에서의 개관 경우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찰의 개관비용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관계로 이를 근거로 대략적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상기 비용 내역 중에 생활비 항목을 제외하면 사찰의 개관비용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240냥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닐 것인데 과연 이를 어떻게 충당하였을 것인가.¹⁰⁾

8) 상기 표를 보면 용장사판은 1635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개관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숙련된 각자공이 양면 1판을 판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7일 정도 걸리므로 700판을 完刻하는 시일은 4,900일이 예상된다. 조사결과 용장사 개관에는 印和 등 총 12인의 각수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단순히 판각에만 대략 14개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판각 이전에 수행되는 교정작업과 판제가공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3년 정도 예상되므로 이 불사는 1630년 용장사 중창 이후 곧바로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고창 선운사에서 1710년 개관된 『釋氏源流』 권4의 맨 뒤쪽 시주질 하단에 “一板雕該錢四兩, 一丈書該錢三錢, 畫該錢二錢, 一板本價錢一兩”이란 개관비용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이는 1판의 판각비용이 4냥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시차가 약간 있지만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10) 최근 복각 완료한 『삼국유사』의 경우 1판을 판각하는데 대략 7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1판 당 각수의 인건비용은 4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700판을 판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8억으로 추산되므로 그다지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당시 통용된 1냥의 현재적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조선시대 화폐가치는 米價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병란과 자연재해 등의 환경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되므로 일정하게 환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논자에 따라 1냥의 현재적 가치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산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는데, 필자는 개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50만원 수준이 적절한 금액으로 본다.

3. 개관불사의 주체

3.1 시주자 분석

조선 후기 1635년에 전라도 태인 용장사에서는 11종에 달하는 대규모의 개관불사가 있었다. 이 개관 시기는 불과 30년 남짓한 사이에 양난과 정묘호란이 발발한 이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장사에서는 최소 5천 냥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불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불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모금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으나, 실제 많은 시주자들이 모연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개관불사 당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주한 인물들의 명단을 각 불서의 시주질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¹¹⁾

<표 7> 태인 용장사판의 시주자 명단

서명	대시주	시주
高峯和尚禪要	大禪師 太能 諸經供養大施主 崔繼長 諸經布施大施主 申福 引勸大施主 思信 大施主 印軒 住持 敏雄	-
金剛般若波羅密經 (五家解)	大德 太能, 大德 戒熏, 大德 太浩, 大德 覺性 金剛經大施主 李春男 板子大施主 法皓 供養大施主 朴眞玄 布施大施主 宝俊, 金石水, 李愛富, 彦臨, 徐世卜, 必代, 遺光, 金金 食鹽大施主 秋貴卜 末醬大施主 大儀 板大施主 金應招 供養大施主 朴福男 末醬大施主 玄哲 供養保體 成應	禪德 弘珠, 玄浩, 法云, 智水, 坦衍, 云祖, 海英, 智通, 智全, 學眉, 弘均, 印宝, 勝一, 天測, 令頤, 道性, 法淳, 惠日, 省明, 海信, 懶維, 哲 悟, 道默, 道剋, 施主 宋因, 愁里金, 朴世(27인)
大佛頂如來蜜因 修證了義諸菩薩 萬行首楞嚴經	大禪師 太能 大禪師 戒熏 大禪師 太浩 大禪師 海眼 大禪師 覺性 (禪師法雲靈駕)	尙規, 戒行, 尙岩, 双印, 妙熙, 處演, 敬訓, 戒林, 學澄, 性玄, 李神, 崔 福立, 李永同, 李彦卜, 李春万, 李永男, 李春卜, 李億每, 金風山, 金 世還, 金春生, 金世, 金德立, 金今堂, 宋四年, 宋德訓, 崔得男, 崔臨 男, 崔永生, 高成男, 朴南山, 朴甘卜, 權希赤, 申春生, 申莫金, 申應 世, 申德連, 申上伊, 尹包石, 尹得, 尹承男, 劉介金, 李遵, 朴春鶴, 紫應立, 陸明云, 黃石金, 姜同金, 鄭得老, 李白陽, 洞春, 玉知, 白

11) 용장사본의 난외에도 다수의 시주자가 새겨져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명	대시주	시주
	烹板釜子大施主 鄭必世 諸經供養大施主 崔繼長 兩主 諸經布施大施主 申福 兩主 引勸兼大施主 大儀 住持兼大施主 敏雄 末醬大施主 玉林 板大施主 金應招 板大施主 法浩 布施大施主 裊彥卜 大施主 宋神,趙希連,金大吉,金延壽, 崔寶,印軒,慧淨 烟大施主 性悟,禪淨	知,朴臨,必今,玉花,日連,卜禮,末非,介臨,今春,今代,春伊,輩臨, 三介,莫介,今花,恩介 阿黃,文尹宅,應生,者介,沔代,大淑(74인) 卷9末: 玄浩,劉水,趙允石,應和,入准,珠万,道心,令信,崔秩男,惠 彥,密行,雙雲,知崙,敬閑,永浩,行准,浮甘,申己尙,劉洪 心,朴貴山,老良伊,主介,高忠乞,春代,崔彥倍,金松仁, 李己,金從水,春口,姜焚丁,雪玉,思印,崔守孫,李壽孫, 臨伊,高一石,介臨,太心,法律,吳士明,上岑,弘均,彥珠, 法尙,李代,裊臨山,徐壽昌,金与天,李芑山,寺轉,成非, 金大允,朴二男,若雪,金於,金一生,水成介,金金,寶彥 倍,內每,河旣,道成,金億壽,金弘立,末終,宋壽南,李鶴 壽,李難卜,趙內金,李香,金彥嫩,沈王乃,丁邑介,李進, 玉代,良介,奉手,奉春,李小之,內花伊,金應芑里,崔貴 番,梁得立,徐一日,風眞,內臨,戒臨,張臨,鄭知,金西峯 (90인)
大慧普覺禪師書	供養大施主 崔繼長 兩主 布施大施主 申福 兩主 大施主 裊彥福,大儀,敏雄,李太卜, 思信,印軒,玉林,法淳	成德,金英世,長德,正之,李芑世,南旣金,鄭山水,鄭業錄,彥德 (9인)
妙法蓮華經	大施主 李太福, 孫氏禮任,崔繼長, 申福,裊彥福,大儀,右金,敏雄,信 和,玉林,思信,法淳,法浩,印軒,河 蓮水,趙熙蓮,金神知	吳成福,盧應國,趙恅(吳)孫,崔彥介(4인)
法集別行錄節要并 入私記	大禪(師) 太能 供養大施主 崔繼長 布施大施主 申福 引勸兼大施主 大儀 大施主 金彥敬, 宋厚男	金中立,知全,明贊,法淳,惠日,法浩,海英,雙淳,懶維,彥今,慧印, 熙玉,戒崇,性悟,旣伊,信海,玄益,信洁,金彥壽,應悟,印淨,信悅, 應玄,儀寬,敬日,介古里,三玄,法印,戒祐,學暹,儀贊,日幸,靈熙, 忠彥,天真,秀天,玄輝,清雲(38인)
佛說廣大歲經 (音譯)	大禪師 太能 大禪師 戒熏 大禪師 太浩 大禪師 海眼 大禪師 覺性 大施主 宋仁吉,金哲,成允,金神知,崔 繼長,申福,裊彥福,金壽平,朴水 會,趙成男,大儀 供養大施主 海令,靈惠	朴万山,趙申孫,廉世風,車得龍,金世金,金難金,崔太進,鄭長守, 陳銀金,高允花,鄭守永,銀介,春代,禿今,者德,竹立,禹金,趙必, 者付介,金白,卜印,李仇白,李允得,尹元其之,朴應泉,金五金,鄭 水山,金仁卜,張福守,金日同,廉天之,廉漢日,崔順山,崔命進,姜 彥卜,宋臨訓,宋七身,太淮,明彥,信連,敬天,勝梅,靈敏,雷運,思 允,性文,性明,虛甘,行淮,玉淡,敬淨,道元,學連,義連,祖禪,義祐, 道行,敬玉,戒浩,熙說,執伊,卜吉,命春,春今,順非,申金,李之,宋 之男,金承一,孔玆金,高宏九,崔永生,崔免見,李訖万,鄭訖山,徐 芑卜,崔芑屎,吳順卜,崔億全,姜夢祥,吳大方,朴芑男,吳天卜,尹 (豆許)音孫(84인)
禪源諸詮集都序	大禪師 太能 大施主 裊彥福 兩主 引勸兼大施主 大儀 施主 天測 大施主 金莫世 兩主 大施主 金大吉 兩主	李士朝,敬春,今代,尹德,汝均,漢德,李白水,湛彥,法寬,玄浩,天 演,張延壽,清德,張今世,儀淡,儀軒,希元,戒浩,海心,孔芑石,金 莫難,尙見,印寶,信和,法湛,春代,德禮,劉介金,孝義,知修,處發, 戒軒,李官世,儀尙,柳氏,可機,德非,吳世必,芑代,軟介,崔芑世, 朴百年,金億万,金壽金,宋中招,雙元,信岩,金命卜,宋涵,今介, 水代,彥介(52인)

서명	대시주	시주
水陸無遮平等齋儀 撮要	大禪師 太能 大施主 河延水 兩主 供養大施主 崔繼長 兩主 布施大施主 申福 兩主 引勸兼大施主 大儀 住持兼大施主 敏雄 板子大施主 法浩 末醬大施主 玉林 末醬大施主 思信 大施主 李儀水	禪德 法雲,智修,坦衍,海令,印宝,知全,惠日,海信,學眉,弘均,法淳, 靈蹟,知通,哲悟,懶唯,清云(16인)
天地冥陽水陸齋儀 纂要	大禪師 太能 大施主 宋紳 兩主 諸經供養大施主 崔繼長 兩主 諸經布施大施主 申福 兩主 引勸兼大施主 大儀 住持兼大施主 敏雄 末醬大施主 玉林 食鹽大施主 法淳 大施主 金松 兩主	禪德 法雲,智修,坦衍,海令,印宝,知全,惠日,海信,學眉,弘均,法淳, 靈蹟,知通,哲悟,懶唯,清云, 施主 林守珍(17인)
初發心自警文 (合: 四法語, 蒙山 和尚法語略錄)	大禪師 太能 諸經供養大施主 崔繼長 諸經布施大施主 申福 引勸大施主 大儀 板子大施主 徐瑞福	朴松山,金山,金世林,朴福山,朴彥同,朴得男,趙士男,劉連代,文 德,文化,文非,風介,鄭論山,業介,春介,日介,李洪季,石天代,朴 難,文莫世,趙億益,九花,崔葡龍,李上,李福,張愁里,金今,吳奉 鶴,李克男,金明進,順介,玉晶,太圭,戒失,儀宝(35인)
	대시주 총 131인	시주 총 337인

상기 자료를 근거로 개관불사에 참여하여 헌금한 대시주는 131인이며, 용장사 주변 지방의 민간인 중심의 일반 시주자는 337인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대시주 131인은 여러 불서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인원을 합산한 것이나, 일반 시주는 禪德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회성으로 참여한 인원이다.

먼저 용장사관 대부분 불서의 시주질에 大禪師 太能, 戒熏, 太浩, 海眼, 覺性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당시 불교계의 주도적 인사들로 실제 시주를 하였다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맨 앞머리에 기재된 逍遙堂 태능(1562-1649)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산 휴정 문도의 주요 제자 중에 한사람으로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일파를 형성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개관불사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지근거리에 소재하는 금산사에 주석하면서 금산사의 중창불사를 지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성(碧巖, 1575-1660)선사는 임진병난으로 소실된 구례 화엄사의 중창불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과 남한산성의 개축을 주관했던 인물인데,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가하면 계훈은 1613년에 경상도 경산의 안흥사에서 『作法節次』와 『結手文』을 편각하고, 1631년에 경상도 청도의 수암사에서 『법화경』과 1635년에는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화엄경소』를 간행하는데 전문 刻手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한편 상당량의 재물을 시주한 인물이 여러 불서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 민간과 사중의 대표적 대시주자는 아래와 같다.

<표 8> 민간 및 사중의 주요 대시주자

書名 \ 施主者	민간 대시주자			사중 대시주자		
	崔繼長	申福	裊彥福	大儀	敏雄	玉林
高峯和尚禪要	√	√			√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		
大佛頂…首楞嚴經	√	√	√	√	√	√
大慧普覺禪師書	√	√	√	√	√	√
妙法蓮華經	√	√	√	√	√	√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		√		
佛說廣大藏經(音譯)	√	√	√	√		
禪源諸詮集都序			√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		√	√	√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		√	√	√
初發心自警文	√	√		√	√	
시주 종수	9종	9종	5종	10종	7종	5종

상기 자료는 용장사에서 개관한 11종의 불서 시주질에서 대시주로 참여한 횟수가 많은 순서로 민간인과 승려 각각 3인을 선정하였다. 아마도 이들 6인이 전체 개관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현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인 대시주자는 최계장, 신복, 배언복 3인으로 이 중 최계장과 신복은 『고봉선요』 등 9종의 불서에 걸쳐 가장 많이 시주한 사람이며, 다음으로 배언복은 『능엄경』 등 5종의 불서에 시주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민간인으로 시주한 사람인데, 최계장은 ‘諸經供養大施主’라는 칭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불서의 개관불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사중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미곡이나 소금 등을 시주하였을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최갑부’로 불리던 사람이 아닐까 한다. 또한 신복의 경우는 ‘諸經布施大施主’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각 이후 인출에 소용되는 종이를 시주한 사람으로 보이므로 당시 인근 지역에서 한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던 紙商은 아닐까 생각된다. 당시 태인 지방을 중심으로 섬진강과 만경강을 끼고 있는 인근의 남원과 완주지역이 우리나라 제지의 중심 산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리고 사중에서는 대의, 민웅, 옥립 등 3인이 가장 많이 시주한 승려로 파악되었다. 이 중 敏雄은 ‘住持兼大施主’라고 기재되어 있어 개관 당시 용장사의 주지 소임을 맡았던 승려이다. 특히 大儀는 10종의 불서에 시주하여 가장 많이 참여한 승려인데, 그는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120권에 달하는 거질의 『화엄경소』 간행에 각수로 참여했던 경험으로 보아 板化士 性宗과 板大施主 金應招, 각수 경험이 있는 法浩 등과 함께 주로 판재를 선별 확보하고 이를 연판하는 작업에 시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玉林은 ‘末醬[매주]大施主’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양간을 주관하는 비구니로 주로 식료품등을 시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주질에 보이는 善德은 법랍이 높은 승려를 존칭하는 칭호로 老德 혹은 大德과 유사한 의미로 통칭되는데, 이들은 경우에 따라 인권이나 연화질에 중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에 法雲, 坦衍, 智修, 哲悟, 海英, 法連, 性允 등은 적어도 한차례 이상 경관을 관각한 경험이 있는 각수로 활동했던 승려계층이다. 또한 선덕 智全은 無竟堂 子秀가 1700년 전후로 작성한 <용장사사적기>에 보이는 인물로 정유재란에 소실된 용장사를 1630년(경오년)에 敬則과 함께 다시 중창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 아무래도 백세 이상 장수한 장로일 것이다. 또한 일반 시주에는 대성씨인 金氏와 李氏와 비교하여 회성씨인 宋氏, 崔氏, 申氏의 성을 쓰는 사람이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씨가 없는 천민계층도 간혹 보이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편찬한 각 종 地志의 태인 항목에 태인 지방에는 礪山宋氏, 全州崔氏, 高靈申氏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2 개관자 분석

용장사 개관불사는 僧俗의 협업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개관불사는 전체 일정을 주관하고 비용을 조달하는 화주, 불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권과 연화(사찰내 세부적 소임으로 별좌, 서기, 지전, 삼강, 삼보 등), 그리고 실제 판재를 다듬고 목판에 글자를 새긴 연판과 각수 등이 참여하여 수행되었다.¹²⁾ 이처럼 불사의 개관작업은 여러 분야에서 각자가 맡은 소임을 수행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된다. 다음은 용장사판 11종의 시주질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화주 등 刊役に 참여한 명단이다.

<표 9> 태인 용장사판 간행 참여자

書名	校正	化主	助緣者
高峯和尚禪要	應俊	大化士 戒學 化士 崔根, 金水平	別坐: 勝梅, 克念, 儀日, 三性, 儀圭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尙圭	幹善大化主 性宗	和尚: 敏雄, 三寶, 道默, 持殿 尙隣, 緣化秩: 孫石甲, 李應每, 金德天, 姜平守, 春介 別坐: 法行, 書記 懷信, 法允, 應生, 生伊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尙規	大化士 戒學 板化主 性宗	引勸秩: 勝一, 玄浩, 弘珠, 林仁水, 崔根, 金善文, 文守元, 李應每 緣化秩: 剋括, 會信, 惠雨, 法連, 三性, 法天, 儀圭, 法行, 法 信, 朴漢孫, 生伊, 朴恠(ㄱ)同 書記: 義明, 持殿 慧淨, 別座 勝梅

12) 사찰에서 개관에 참여한 각자의 소임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고. 柳鐸一, 『嶺南地方出版文化研究』 (부산: 세종출판사, 2001), 250-251.

書名	校正	化主	助緣者
大慧普覺禪師書	-	化士 戒學 丁化士 李應每 板化士 性宗	引勸秩: 勝一, 弘珠, 玄浩, 戒彥, 崔根, 金水平, 金善文, 金得龍, 福德, 白之, 弘戒, 李卷卜, 宋震生, 處日, 法惠, 性熏, 知俊, 三應 緣化秩: 法允, 法天, 儀日, 會信, 法連, 惠祐, 法行, 應生, 生伊, 朴漢孫, 朴恠(ㄱ)同, 禮終 別座: 勝梅, 極念, 書記 義明
妙法蓮華經	-	化士 戒學(學) 丁化士 李應每 板化士 性宗	引勸秩: 勝日, 弘珠, 玄浩, 戒彥, 道極, 崔根, 金水平, 金善文, 金得龍 緣化秩: 法允, 法天, 儀日, 會信, 法連, 惠祐, 法行, 應生, 生伊, 朴漢孫, 朴恠(ㄱ)同 別座: 勝梅, 極念, 書記 義明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應俊	化主 戒學	書記: 義明, 別座 勝梅, 持殿 慧淨
佛說廣大歲經(音譯)	-	化士 戒學	引勸秩: 勝日, 玄浩, 文守允, 崔根, 金善文, 金西峰 持殿: 慧淨, 書記 義明, 別座 勝梅
禪源諸詮集都序	應俊	化士 戒學	持殿: 慧淨, 書記 義明, 別座 勝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應俊	大化士 戒學 化主 崔根, 金水平, 金善文, 性宗	引勸: 勝一, 太敬, 愛介, 金代上 緣化: 儀日, 儀圭, 三性, 法天, 法允, 會信 三綱: 懶應, 持殿 慧淨, 別座 勝梅, 克念, 書記 義明, 冶匠 金命水, 鍊板 吳守眞, 法信, 尙連 緣化秩: 儀日, 儀圭, 三性, 法天, 法允, 會信, 法連, 惠祐, 法行, 應生, 生伊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應俊	大化士 戒學 化士 崔根, 金水平, 金善文, 金得龍, 李應每	引勸: 勝一, 弘珠, 持殿 慧淨, 三綱 可奇, 別座 勝梅, 克念, 書記 義明, 冶匠 金命水, 鍊板 吳守眞, 法信, 尙連 緣化秩: 儀日, 儀圭, 三性, 法天, 法允, 會信, 法連, 惠祐, 法行, 應生, 生伊
初發心自警文 (附: 四法語, 蒙山法語略錄)	應俊	大化士 戒學 化士 崔根, 金水平	引勸: 鄭論金, 持殿 慧淨, 別座 勝梅, 克念, 書記 義明 緣化: 儀日, 三性, 儀圭

위의 간행 참여자 명단을 살펴보면, 개관불사의 실제 작업은 승려 戒學과 性宗이 주관하였으나, 또한 여기에는 민간인 崔根, 金水平, 李應每, 金善文, 金得龍 등이 함께 화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승속이 협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화주로 참여한 성종은 금산사에 있는 『소요당비(음기)』에 승통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태능의 문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서의 판각에 앞서 應俊과 尙圭가 교정하였는데, 이 중 응준(1587-1672)은 17세기 초반에 지리산 能仁庵에서 사집과 불서와 『법화경』, 『원각경』 등을 간행하는데 각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나 동일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이러한 응준의 이전 경력으로 보아 앞에서 판본학적 측면에서 용장사관의 상당수가 능인암본을 저본으로 복각했다는 앞의 논의와도 일정부분 수궁이 가는 사실이다. 아울러 『결수문』에 기재된 연화질과 함께 그 끝부분에 冶匠 金命水와 鍊板 吳守眞, 法信, 尙連 등의 이름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용장사관 야장과 연판에 관한 유일한 근거 자료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용장사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1종 가운데 9종에 개관불사에서 핵심

적 역할을 맡은 각수들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결수문』과 『중례문』의 시주질에서 12명의 각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목판의 판각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0> 용장사판 판각 각수 명단

해당불서	승려각수	민간각수	인원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印和, 道慈, 性玄, 成云, 法海, 宝元, 玄淨, 學淳, 杜一, 修還	林之先, 金光立	12명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印和, 道慈, 性玄, 成云, 法海, 宝元, 玄淨	林之先, 金光立	9명

상기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결수문』에는 12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중례문』의 경우는 3명이 적은 9명만 보이고 있다. 이 2종의 각수질에는 ‘刻子’라는 지칭어 아래에 맨 앞에 기재된 ‘印和’ 등 12명의 명단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 순서로 보아 인화는 으뜸[都,首,頭] 각수로 보인다. 그는 교정을 본 應俊과 함께 17세기 초반에 지리산 능인암에서 사집과 불서와 경전을 간행하는데 각수로 활약했으며, 또한 1607-1608년 사이에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법화경』과 사집과 불서를 판각하였던 인물이다. 그 후로도 1657년에 장흥 천관사에서 『불설천지팔양경』을 판각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각수 성현과 학순은 순천의 송광사에서 『화엄경소』 등을 간행할 때 각수로 참여하였으며, 보원과 수환 역시 영정사와 반응사에서 『법화경』과 『운수단』을 판각하였다. 다만 『결수문』에 기재된 12명의 각수 중에는 임지선과 김광립 2인의 민간인 각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태인현에 소속된 민간 각자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각수명은 상기 2종의 불서에만 나타나고 있어 과연 이들이 용장사판 11종 전체를 판각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결수문』과 『중례문』 판본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최저 1명부터 최대 8명 정도로 평균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 따라서 다른 판본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각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용장사판 『결수문』에 기재된 12명의 각수는 용장사판 전체 11종의 불서를 분담하여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언

이상에서 1635년 전라도 태인의 용장사에서 간행된 불서 11종을 대상으로 불서의 성격과 개관불사에 소용된 비용문제, 그리고 이 불사에 참여한 시주자와 간행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양상을

13) 송일기, 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 板本考,” 『書誌學報』 제37호(2011. 6), 44-45.

분석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태인 용장사에서는 1635년 개관불사 전후로 전혀 간행사실이 없이 특정시기에 오직 한차례에 11종의 불서가 개관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서 간행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일시에 11종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관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조선후기 민간의 개관사례와 대비한 결과 현재적 가치로 환산하여 대략 최소 25억 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셋째,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개관불사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 대략 50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 신도와 산중 승려가 참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간인 최계장, 신복, 배인복과 승려 대의, 민웅, 옥림 등 6인이 소요비용의 절반 이상을 시주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그리고 실제적인 개관불사는 화주 계학과 성종의 지휘 아래 연인원 130여 명이 가담하여 진행되었으며, 인권과 연화로 참여한 선덕 중에는 다른 사찰에서 실제 판각에 참여하여 각수로 활동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불서 개관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핵심적인 개관작업은 목판을 판각하는 작업인데, 용장사판 전체를 판각하는 일에 12명의 각수가 투입되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2명의 각수 중에 으뜸 각수인 인화는 이 보다 앞서 능인암과 송광사에서 사집과 강원교재 등 다수의 불서를 판각한 경력을 지닌 전문 각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섯째, 이러한 일련의 개관과정을 거쳐 간행된 불서는 『고봉선요』 등 모두 11종의 불서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불서의 성격은 대체로 사중에서 승려 교육에 필수적인 교재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사찰에서 죽은 이의 천도를 위해 시행되는 불교의례에 필수적인 의례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 결론적으로 태인 용장사의 개관불사는 양난을 거친지 오래되지 않은 곤궁한 시기에 이미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사찰을 1630년 중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막대한 소요비용을 투입하여 불서를 간행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는 일차적으로 양난을 거치면서 소실된 불서 중에 사중에서 간장 긴요한 강원교재와 의례불서를 시급히 보급할 의도로 보이며, 다음으로는 인근 사찰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대찰인 금산사와 선운사에서 이들 불서의 간행 사실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할 필요성에서 소요 태능과 벽암 각성 등 당시 호남 불교계의 주요 선사들의 발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곳이 왜 용장사인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연구 대상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송일기. “白坡 巨璇과 養眞居士 朴致維의 만남.” 『불교문화연구』 제8집(2006). 169-209.
- 송일기, 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 板本考.” 『書誌學報』 제37호(2011. 6). 44-45.
- 송일기. “禪雲寺板 『釋氏源流』의 刊行事實.”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2014. 5). 241-257.
-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書誌學報』 제30호(2006. 12). 63-88.
- 허인욱.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전북사학』 제48호(2016). 32-54.

